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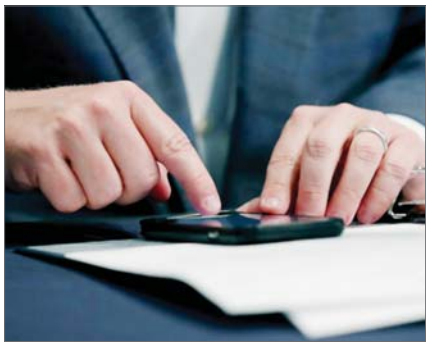
금리하락·IFRS17도입에 생보사 ‘저축보험’ 애물단지 전략

작년 5.9% 고금리 상품 완판기록
올해 시장금리 하락에 2%대로 뚝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부채인식
저축보험 증가뻔 건전성관리 불리

생명보험사가 내놓은 저축성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해 연 5.9%의 고금리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등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이 연 2.15~2.9%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예금상품에 연 3~4%를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 판매



생명보험사가 출시하는 저축성보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뉴스시스

에 몰두했다. 일부 생보사는 저축성보험에 연 5.9%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출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완판 기록을 세웠다.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권이 연 4~6%대 예금 상품을 통해 자금을 흡수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당시 금융업계에서는 연 6%의 저축성보험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생보사의 고금리 저축성보험은 중장년층의 러브콜을 받았다. 통상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만기 일시납으로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이 은퇴를 준비하기에는 최적의 상품인 것.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은행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유사하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가입자가 만기도래 후 수령하는 금액이 커진다.

생보업계는 한동안 지난해와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저축성보험 상품을 내놓기 어려운 환경

을 맞이했다. 통상 생보사는 가입자를 통해 조달한 보험료를 은행채(AAA), 공사채(AAA), 기타금융채(AA), 기타금융채(A) 등을 통해 운용한다. 그러나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해당 채권의 금리 또한 함께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자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 시장의 특성상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

지난해 4분기 국고채 금리는 연 4.46%까지 치솟았지만 5개월 사이 1.06%포인트(p) 하락하며 이달 연 3.4%를 기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생보사들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을 연 5.9%까지 제시해가며 자금을 모았지만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올해부터 보험사에 새 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저축성보험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해석이다. 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저축성보험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채로 책정한다. 과도한 저축성보험 증가는 건전성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생보업계가 올해 암보험 상품 보장내역에 유사암, 재발암, 잔여암수술비 등을 확대하면서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체질 개선을 단행한 것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보다 보장성보험이 적은 생보업권의 특성상 새 국제회계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며 “저축성 보험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신한銀, 부동산 PF시장 5500억 유동성 지원

재건축 사업장 자금조달 부담에
신규·브릿지론 만기연장 주선

신한은행이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자금과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통해 5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규자금지원 2500억원과 브릿지론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총 5500억원을 지원한다.

통상 거래의 신규자금지원은 다른 금융기관과 대주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한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규자금지원 중 일부는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채권보전에 있어 기존 대출 대비 후순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PF사업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브

릿지론에 대한 만기연장도 주선한다. 최근 일부 브릿지론 취급 사업장은 공사도급 단가 인상,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해 본 PF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만기연장도 거절돼 공매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브릿지론 연장을 통해 자금부족 등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의 조건을 감안해 본PF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PF 시장 자금 경색으로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입주일자 연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진행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폐기 앞둔 사무용 전자제품 재활용 추진 신창재 회장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보험 브리핑

한화생명 자원순환 ESG 경영실천
교보생명 창립자 이어 두번째 수상

한화생명이 전기·전자제품자원순환을 통해 ESG 경영실천에 나선다

◆재활용으로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570톤(t) 감축

한화생명은 E-순환거버넌스와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영호 한화생명 성장경영추진실장과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앞으로 장기간 사용해 폐기해야 하는 사무용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해 재활용한다. 신분증 스캐너 200여대, 프린터 1800여대 등을 수거해 재활용할 예정이다.

연간 약 172t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570t을 감축하고, 소나무 412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수거한 폐가전제품은 1개당 1000원씩 적립한다. 적립금은 추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기부기관을 통해 아동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

정영호 한화생명 성장경영추진실장은 “한화생명이 금융사 최초로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나선다”라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며 ESG경영이 주목받는 만큼 자원순환 동참 물결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신용호 창립자 이어 세계 최초 부자(父子) 현역

세계보험협회(IIS)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2023 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앞서 1996년 명예의 전당에 오른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세계 보험산업 역사상 최초로 1,2세대 부자(父子) 기업인이 함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은 보험 분야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보험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는 설명이다. 매년 IIS 임원 회의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조쉬 란다우(Josh Landau) IIS대표는 선정 이유로 “신창재 대표이사는 변화혁신과 통찰적 리더십, 사람중심 경영을 통해 ‘보험 명예의 전당’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했다.

제임스 비커스(James Vickers) IIS 아너스 프로그램 의장 또한 “신창재 대표이사의 이해관계자 경영을 통해 교보생명은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인 보험사로 성장했고, ESG 및 지속가능 이니셔티브의 선두 주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험 명예의 전당’ 현액식은 오는 11월 힐튼 싱가포르 오차드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IIS 연차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선전에 이어 보험 분야의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며, 보험의 정신을 함께 실천해온 교보생명 임직원들과 재무 컨설턴트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국민카드, 디지털·금융 등 ICT부문 신입사원 수시채용

카드 News

하나카드
외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비교 분석
단기체류자 카드이용액 4배이상 ↑

KB국민카드가 신입사원 모집에 나섰다.

◆보훈·장애 등 취업 보호 대상 별도 운영

KB국민카드는 2023년 ICT부문 신입 사원을 수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시 채용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진행된다.

▲디지털 ▲데이터 ▲금융 ▲IT 총 4개 직무가 대상이다. 특히, IT직무의 경우 일부 인원에 대해 취업 보호 대상을 별도로 운영한다.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학력, 성별, 연령, 전공 등에 관계 없이 KB국민

카드 채용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 오전 11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온라인 역량 검사를 진행한다.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 전형은 같은달 23일로 예정하고 있다. 필기 전형은 국가직무능력(NCS)기반 직업 기초능력 평가와 함께 실기(코딩) 테스트를 운영한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 전형 후 실무자, 임원 등 단계별 면접 전형을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융인으로서의 주인 의식과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 창조에 기여 가능하며 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카드가 지난해 해외관광객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다.

◆홍콩, 싱가포르 관광객 소비 증가… 중국은 감소

하나카드는 22일 코로나19 확산 전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패턴 비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카드 이용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침체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의 관광객 소비가 증가했다. 반면 국내 카드 이용금액 1위를 차지했던 중국 관광객의 소비가 급감했다. 아울러 일본 관광객 소비도 함께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 소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인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이용금액이 증가한 곳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시도별 이용금액 순위가 기존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어 여수시의 이용금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94.5%)했다.

/김정산 기자